

# “이제부터가 진정한 봄 시작”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스타들 메시지 봇물

배우·가수·만화가·뮤지컬 배우  
“대한민국 만세” 등 SNS에 축하글  
반대 입장 연예인들, 아쉬움 표현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된 4일 연예계 스타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놓았다.

배우 이동욱은 이날 팬들과 소통하는 플랫폼 ‘버블’에서 “이제야 봄이네. 겨울이 너무 길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언뜻 보면 날씨 이야기를 하는 듯하지만,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에 이 같은 내용을 띠워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해 12월에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봄이 한발 가까워진 듯. 따뜻한 연말 되었으면”이라고 적었다.

가수 이승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리의 헌법은 정교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굳건하다. 대한민국 만세”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타리스트 신대철 역시 페이스북에 “이겼다! 눈물 난다”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겼다.

배우 신소율은 인스타그램에 윤 대통령 파면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띠우고 “모두 축하한다. 우리 앞으로 모두 함께 열심히 바르게 잘 살자. 이제 봄을 맞이하자”는 짧은 글을 냈다.

뮤지컬 배우 김지우는 “한동안 시달리던 편두통이 주문을 듣고 난 후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다”고 했고, 정영주는 뉴스 화면과 함께 “만세!”라고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배우 김규리는 라면 면발 위에 파를 올린 사진을 올리고 ‘파, 면’이라고 적었다.

영화 감독 변영주는 인스타그램에 문 소장이 주문을 읽는 뉴스 영상을 캡처해 올리며 “방 빼세요. 그러니 승



재수 작가가 그린 윤석열 대통령 파면 관련 한컷 만화.

(재수 작가 SNS 캡처)

복하세요”라고 썼다.

만화가들도 한 컷짜리 만화를 그리는 등 파면 선고에 대한 반응을 내놨다.

만화가 재수는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주저앉은 윤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그림을 올리고 탄핵 찬성 시위대의 주제곡으로 꼽힌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배경 음악으로 붙였다.

‘술꾼도시처녀들’의 미망 작가는 인스타그램에 “다시 한 번 그날 밤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반면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연예인들은 아쉬움을



dreamfactory\_boss 오늘 드팩에서 한진하겠습니다.

공연 기간 중엔 술 안 마시는데다 이비인후과 의사분도 안

된다고 하셨지만

나도 살고 나라도 산 날,

어떻게 안 마실 수 있어요.

게다가 어느 드팩인께서 마침 잔칫상 안주 세트도

보내오셨고요.

우리의 헌법은 정교하고

가수 이승환 SNS.

나타냈다.

가수 김홍국은 현재의 선고 이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맷글을 통해 파면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언론 매체를 통해 국민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가수 JK김동욱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리 2030들이 번 탄핵 반대를 위해 열심히 싸운 것에 박수와 갈채를 보낸다”면서도 “전 세계가 예상하는 것보다 (한국이) 더 빨리 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썼다.

△

dreamfactory\_boss

5,926

Q 394

▼ 6

/연합뉴스



내가 죽기 일주일 전  
'OST 커버 사진'

## 못다 한 사랑에 마지막 안녕

티빙 시리즈 ‘내가 죽기 일주일 전에’  
동명 소설 원작…청춘물+애틋한 멜로

“잘 지냈어? 그동안 나 안 보고 싶었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이 4년 만에 다시 눈앞에 나타나 태연한 표정으로 이렇게 묻는다.

그를 떠나보내고 하루하루 죄책감에 시들어온 희완(김민하)

분)과 달리, 람우(공명)는 그때 모습 그대로다.

유일하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저승사자가 됐다는 것이다.

최근 처음 공개된 티빙 새 오리지널 시리즈 ‘내가 죽기 일주일 전’은 서은재 작가의 동명 소설이 원작으로, 삶에 의외 없이 히키 코모리(은둔형 외톨이)처럼 살던 스물넷의 희완 앞에 어린 시절 친구이자 첫사랑인 람우가 저승사자로 나타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희완네 집을 찾아온 람우는 우선 어두컴컴한 그의 방 커튼을 열어젖히고, 공기가 탁하다며 환기를 시킨다.

그러고는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웃다가 운을 뗈다. “넌 죽을 거야, 일주일 후에. 너는 176시간 12분 35초 후에 사망할 거야”

이미 세상을 떠난 남자 주인공, 그리고 일주일 시한부 선고를 들은 여자 주인공을 내세운 이 드라마는 두 주인공의 과거 해맑고, 생기 넘치던 모습과 생사의 기로에 선 현재 모습을 교차해가며 보여준다.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설렘 가득한 청춘물과, 피할 수 없는 이별을 앞둔 애틋한 멜로의 재미를 적절하게 배합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같은 반이 된 람우와 희완은 만우절 장난으로 인해 얹히며 둘도 없는 친구가 됐다.

교생 선생님을 골탕 먹이려고 반 아이들이 둘씩 짹을 지어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장난기 많은 희완이 람우라는 이름을 쭉 쓰기 시작하면서 둘은 학교에서 서로의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다.

성격이 정반대인 희완과 람우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키워가는 전개 자체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게 흘러가지만, 감정에 솔직하면서도 표현에 서투른 10대들의 풋풋한 로맨스가 익숙한 재미를 전한다.

4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 공명은 부끄러움 많고, 속 깊은 고등학생이 처음 경험해보는 첫사랑의 감정을 생생하게 묘사해내고, 김민하는 천진난만한 장난꾸러기 여고생과 무기력한 스물넷의 청춘을 오가는 폭넓은 감정 연기를 선보인다.

/연합뉴스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 웨이브, 웹예능에도 문 활짝

‘나래식’·‘르크크 이경규’ 등 제공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가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유튜브에서 인기를 끄는 웹 예능도 적극적으로 서비스한다.

웨이브는 지난 4일 웹 예능 ‘나래식’, ‘지멋대로식’, ‘르크크 이경규’, ‘안녕하세요 최화정이에요’, ‘운동부 둘러왔어요’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들 웹 예능은 각각 박나래, 지예은, 이경규, 최화정, 김태균 등 대중에게 친숙한 방송인과 스포츠 스타가 출연해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맛집을 찾아가며 소소한 이야기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종-166833호]

[광고]

##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